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이유달지 않고 무조건 놓고 가는게 '관'

###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

**문** 저는 평범한 여고생이에요.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요.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지만 여고생의 진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 머리칼을 불가에서는 무명초(無明草)라고 하죠. 스님들이 삭발을 하는 것은 무명초를 자르는 의미인데, 무명초를 자르는 것은 탐과 화내며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 삼독(三毒), 그 모두를 다 몰락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선지식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신의 머리를 만져 보라" 하구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올바른 행을 하고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는 수도생활을 하는 데 조금도 어긋이 없이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부처님 당시에 출가자인 석존과 재가자인 유마힐 거사가 한자리를 했던 것은 입산한 스님 이든, 재가자인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성이 있고 마음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둘째는 그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같이 하고 있으니 유마힐과 석존이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기어 모순은 유마힐거사라는 방편, 부처님이라는 방편을 지니고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영화 배우들이라면 부처님의 역할을 맡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자기의 근본 종지가 바로 개신되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 배역을 가지고 나온 거죠. 유마힐은 유마힐대로 그 배역을 가지고 나온 거구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를 똑같이 했어도, 뿌리는 같으나 모습이 각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서,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 중생들은 말없이 거들지언정 보이는 데서, 즉 말하자면 이끌어 갈 수가 없으니 방편으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거죠. 안팎을 다 이끌어 가려고 말입니다.

###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

**문**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일곱

발자국을 걸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일곱 발자국을 걸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것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그것은 모습이 아니라 뜻을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결코 부처님 당신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라대천세계, 즉 우주천지와 세상의 근본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본, 마음의 성품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우주천지의 근본이었음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밝았기에, 있다 없다는 말조차 붙일 수

빨리 깨쳐야겠다는  
 생각도 욕심이나  
 생활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세요

하기 이전, 생각나기 이전,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근본을, 즉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왜 '본래' 여여하게 걸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 욕구 등을 영화보듯이 보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관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자주 팔자를 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사주팔자를 봐 주신 분이 이야기 하셔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주인공'에게 놓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 초심자로서 처음 배울 때는 자기의 근본자리에 일체를 맡겨놓으라고 합니다. 맡겨놓을 수 있는 선을 세워야 마음이 안위가 되고 편안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걸지도 않고 뛰어다니면 안됩니다. 내가 진짜 걸어보고 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려놓지 못하는 전자에 입력된 대로 그대로 나오

## 일체경계 놓다보면 '자기가 부처' 알아요 '내가 한다' 생각없이 보고 듣고 행하도록

없는, 그래서 본래부터 있어온 이 마음의 근본을 깨우치고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의 근본을 깨우친다면 일차적으로는 자기 욕제를 구성하고 있는 습관 중생들을 다 제도하여 마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방을 둘러 보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무공(無功)이요, 무색(無色)이므로 모두 다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을 비유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일곱 발자국을 떼어 놓으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한몸이요, 한자리이면서도 또한 한 너가 있고 내가 있느니라. 우리의 생활은 바로 활나찰나의 연속이지만 항상 여여하므로, 그것이 곧 그대로 진리의 길 이니라'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없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진리, 이 마음의 근본은 말로써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식이나 지식으로도 다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대 부처님과 선지식들께서는 말없는 가운데 가르치셨고, 말없는 가운데 배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

그러는지를, 지혜롭게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관'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요

**문** 주인공에 모든 것을 몰락 놓고 관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입니다. '주인공,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주인공 당신이 나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줘' 라든지, '주인공, 지금 나에게 이런 고민들이 있어, 당신이 나의 주인공이냐, 잘되든 못되든 당신에게 맡길게'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공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허공에다가 하나의 상을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전부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맡기고 주인공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주인공에게 몰락 맡기고 관하라고 하셨는데 그 '관'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막연하게나마 어떤 생각이나 기

니 피할래야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바꿔서 입력을 하라는 소리인데, 이 세상은 구르면서 끝없이 이어져요. 굴림을 모른다면 나라는 게 세워지기 때문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는 게 있기 때문에, 세울 게 있기 때문에, 놓을 게 없다고 세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놓기는 뭐를 놓겠습니까. 그건 벌써 나라는 걸 세우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립해서 놓을 게 없든 놓을 게 있든 몰락 보아야 합니다. 이게 틀리다, 저게 옳다 이리저리 말하고요.

잘못한다도 없고 잘한다도 없어요. 나무가 바람에 쓸리고 눈에 맞고 비를 맞고 또는 공기, 태양열 등이 많이 흡수가 돼도 나무는 말이 없어요. 뿌리만이 울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순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맡길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여여하게 맡겨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넘어서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무는 그대로 뿌리에서 흡수해서 밑으로 내리고 울리고 태양열, 공기 등 모든 것을 흡수해서 내려보내도 그 내려보내기 위해서 나무가 때로는 비에 젖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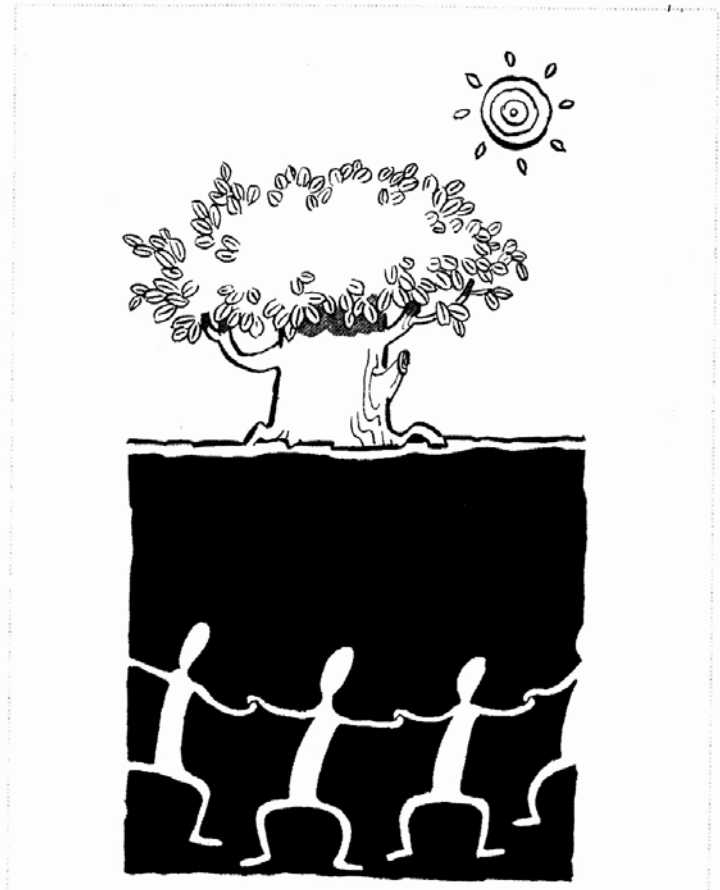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때로는 눈에 젖고, 때로는 바람에 쓸리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에 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밑에서는 수분이나 또는 황열, 철분 등을 흡수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렇게 영양을 섭취해서 푸르르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닥칩니다. 그러나 자기에 게 뿌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집내지 않고 굳건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인공 이름을 부르니, 허공에 하나의 상을 만든다느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더욱이나 주인공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놓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데서 잘못되고 잘되고가 돌아가니가 생각을 해야, 즉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 돼서 무효예요. 생각을 못하면 목석이 돼서 무효고,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육체가 없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효이니 삼단계가 하나로 집합이 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를 붙이지 않고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각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비의 길잡이~

**현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사 0631-281-2534  
 양양지사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사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관광을 겸한 뱃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 탐영제 뱃생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묘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뱃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 433-2900, 0303  
 (0655) 432-0652, 0072

■약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새천년 사찰성지에 석불, 석탑, 석등으로 도량장엄하겠다는  
**대서원을 세우고 아세아예석은 탄생하였습니다.**

**아세아예석 (亞世亞藝石)**  
 기획도감 부림 거사  
 ■ 전직 : 02-3417-3388  
 ■ H.P : 011-9674-3388  
 ■ FAX : 02-3417-3388

◎ 취급품목:  
 석불, 옥불, 석탑, 석등, 영탑, 시비  
 석판화(색인물, 민속화, 가훈등)캐릭터 예술조각

◆ 3대 만족 ◆

- 1 가격결정은 각 사암 주지사님 결정 (가격 경쟁력 있음)
- 2 석조예술 창조하는 안목 있음 정교하고, 균형잡힌 아름다운 선, 진진한 미소
- 3 천년세월을 지켜갈 작품, 신심있는 대서원으로 봉사함

※ 먼 도리산 옥지장사 6만불, 천탑, 천등, 불사 중 ※